

무궁화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지하철이 개통된 이래 20년동안, 중간에 군대생활 3년이 포함돼 있지만, 한결같이 지하철로 등·하교 또는 출·퇴근해 오다 보니 그 속에서 연출되는 갖가지 풍경들이 이제는 뱉 수 없는 일상의 한 부분으로 익숙해진 지 오래다. '지옥철'로 불릴만큼 악명 높은 번잡과 소란조차 하등 새로운 게 없는, 늘 겪는 범상한 일쯤으로 치부해버리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래서지 언제부터인가, 승객들과 부대끼며 공연히 짜증을 내기보다는, 한시간 남짓 되는 지하철 속의 출근길(혹은 퇴근길)에서나 그 무료함과 지루함을 사키는 작은 즐거움이랄까 오락거리를 찾는 일에 재미를 붙여가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책을 읽거나 손에 들고 있는 승객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일인데, 최근 몇 년 사이 지하철에서의 독서가, 일반의 통념과는 달리, 아주 흔한 일이 된 탓인지 제법 재미있는 발견을 할 때가 적지 않다.

우선 눈에 띄는 현상은 자리에 앉은 사람보다는 서서 가는 사람들 가운데 책을 읽는 이가 훨씬 많다는 점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앉아서 가는 이들이 더 많이 책을 읽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특히 출근길에서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게 발견된다. 앉아서 가는 승객들의 대다수는 졸고 있다. 서서는 책을 읽던 이도 막상 자리가 나서 앉게 되면 곧바로 책장을 덮은 채 애써 잠을 청하기 일쑤다. 잠시잠간의 졸음으로 모자란 아침잠을 벌충하거나 하루의 피로를 달래는 것에 굳이 시비를 걸 생각은 없지만, 이 경우 책은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에 읽는 次善의 대용품쯤이 되어버리는 듯해 혼자 고개를 갸웃거리곤 한다.

또하나 흥미를 끄는 것은, 책을 읽는 사람들의, 그 책을 읽어가는 속도다. 책을 다루는 직업 탓인지 내게는 오랜 버릇이 하나 있는데, 지하철 객차 천정에 매달린 등그런 손잡이에 적당히 체중을 싣고 흔들거리면서도 앞이나 곁에서 누가 책을 읽고 있으면 어깨 너머나 곁눈질로 그가 읽는 책을 따라 읽는 일이 그것이다. 그 결과 발견하게 된 사실이, 책을 읽어내는 속도들이 매우 느리다는 점이다. 가벼운 소설류나 에세이를 읽는 경우가 태반인데도 마치 어려운 논문을 읽듯 쉬 '진도'가 나가지 않는 예를 많이 본다. 앞에서 책을 읽고 있는 이의 책장이 하도 느리게 넘어가길래 손목시계로 시간을 재 본적이 있는데, 국판 크기의 소설 두 페이지를 읽는데 놀랍게도 4분을 넘기는 것이었다.

물론 빨리 읽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작고한 문학평론가 김현이 "한 페이지 읽고 한시간 몽상해야 한다"고 했던 바슐라르의 책처럼 천천히 음미하며 읽어야 할 책들도 분명히 많다. 하지만, 적어도 내 경험으로는, 지하철 속에서 그런 책을 읽는 이를 발견한 적은 거의 없다. 즐거위 위주의 소설 같은, 마땅히 빨리 읽어야 할 책들을 읽는 이가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걸 보고 있노라면 역시 고개가 갸웃거리진다. 지하철에서 책을 읽을 정도면 보통 이상으로 책을 즐기는 사람일 것이라는, 막연하지만 틀릴 것 같지는 않은 짐작까지 겹쳐지면 사실은 좀 답답해지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재미있는 것은 과연 어떤 책을 읽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일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하철 속에서 발견되는 책은 그때그때의 베스트셀러 판도를 거의 틀림없

이 반영하곤 한다. 어떤 면에선 독자대중의 일반적인 취향을 가장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는 '성능좋은 풍향계' 구실을 한다. 가령, 요즘에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읽거나 들고 있는 이를 지하철 안에서만 하루에 서너번씩은 꼭 본다. 서점에서 책을 팔며 종이 포장장을 해주지 않은 지 오래여선지 요즘은 '맨 얼굴' 그대로의 책을 들고 다니는 이들이 많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빨간색 표지를 질리도록 자주 발견한다. 호왈 2백만의 판매부수가 전혀 과장으로 여겨지지 않을 정도다.

이 책이 왜 그토록 폭넓은 호응을 얻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소설의 모델이 된 재미 물리학자 이휘소 박사의 죽음을 의문사로 설정한 점, 그리고 그 죽음의 진상을 추리소설적 흥미와 박진감을 동반하여 추적하고 있는 점, 소설 속의 가정과는 달리 이휘소박사는 핵물리학자가 아니며 그의 죽음 또한 단순한 자동차 사고사라는 반론이 매스컴을 통해 제기돼 한때나마 논란을 빚었던 점, 그밖에 시기적으로도 북한핵 문제와 보기 좋게 맞물린 점 등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성공을 설명하는 몇몇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설득력 있는 해명과, 그것의 베스트셀러화현상이 환영할만한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는 아마도 다른 자리에서 따로이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할 부분일 것이다.

다만 분명한 점은 그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무궁화꽃이 '활짝' 피었습니다」라는 것이며, 그 滿開의 장관을 짐작케 하는 가장 상징적인 공간이 다름아닌 지하철이라는 사실이다.

출판저널

통권 제146호 / 1994년 4월 5일 발행

발행인—정진숙
편집인—전병석
인쇄인—이일수
편집위원—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환
편집부장—강철주
기자—정혜옥 이성수
 김중식 배은희
디자인—윤정자
사진—김홍진

업무차장—윤동호
업무·광고—이희천 최병천
 김유희 김용일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타이피아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출판저널」은 서평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매호 '독자서평'을 고정란으로 두고 있습니다. 신간 가운데 감명깊었거나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골라 서평 형식으로 정리한 글을 보내 주십시오. 원고 분량은 2백자 원고지 6매 안팎이며 책명과 저·역자명, 출판사명 등을 꼭 기재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되며 고료도 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3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나는 정신세계사의 책을 몇 권이나 읽었을까?”

성자가 된 청소년

마음의 평화와 깨달음을 주는 감동의 영적 소설집/마바 하리 다스 지음/류시화 옮김/5,000원

빠빠라기

처음으로 문명을 본 남양의 추장 투이아버가 들려주는 문명의 우수광스런 본질/최시림 옮김/4,000원

털없는 원숭이

인간적 행위의 동물적 의미를 들추는 냉정한 인간 성찰/데스먼드 모리스 지음/김석희 옮김/5,000원

파라독스 이습 우화

인간과 삶에 대한 신선한 역설이 담긴 '전혀 다른' 이습 우화/로버트 질러 지음/김정우 옮김/3,800원

파라독스 중국 우화

루쉰, 귀모뤄 등 중국의 현대 작가 22인의 우화 선집/루쉰의 지음/이효립 엮고 옮김/3,500원

자유를 위한 변명

구도의 출근 흥신자의 자유롭고 파격적인 삶의 이야기/홍신자 지음/5,000원

푸나의 추억

라즈니쉬의 첫 한국인 제작자였던 흥신자의 인도에서의 구도 체험/홍신자 지음/5,000원

식물의 정신세계

꽃에게 영혼이 있다는 시인들의 직관을 과학으로 증명한 책/피터 톰킨스 외 지음/황정민 옮김/7,500원

초인생활

히말라야 초인들의 초자연적 세계를 목격한 한 미국인의 기록/베아트 T. 스톨딩/정창영 옮김/7,000원

나는 왜 아버지를 잡아먹었나

소설로 풍자한 인류 진화사. 200만 년을 단숨에, 웃으며 읽는다/로이 루이스 지음/김석희 옮김/4,800원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인디언 추장. 용사, 아나네들의 말을 통해서 읽는 삶의 의미/시에를 추장 외 지음/류시화 옮김/4,500원

사람을 살리는 단식

단식으로 암을 치료한다—이론·방법·임상을 망라한 단식 실천 지침서/장두석 편저/6,500원

건강도인술

젊음과 아름다움을 지켜주는 중국 3천 년의 건강 비법/하야시마 마사오 지음/김중호 옮김/6,500원

건강기공

동양적 건강법의 총체인 기공의 원리와 상세한 수련 방법/이동현 지음/6,500원

이집트의 신비

거대 유적의 비밀과 정신적 유산의 신비를 깨는 영적인 이집트 탐험/폴 브러턴 지음/이규형 옮김/6,500원

단

민족의 역사와 미래, 정신수련법을 다룬 민족 소설/권태훈 중언/김정빈 지음/4,500원

한단고기

사대주의와 식민주의에 밀려 천여 년을 떠돌던 문제의 역사서/임승국 역주/7,000원

옛詩情을 더듬어

신라에서 조선 후기까지, 뛰어난 우리 한시 300여 수를 평설/손종섭 편저/12,000원

天符經의 비밀과 백두산족 文化

우주의 원리가 숨쉬는 秘典(天符經)의 심오한 세계와 우리 고유 문화/권태훈 지음/12,000원

民族秘傳 정신수련법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수련법을 정리, 해설한 책/봉우권 태훈 김수/정재승 편저/6,500원